

도심권

•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6.6% 상승. 도심권 소비경기는 10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

- 전년동월대비 +16.6% = 소매업의 기여도 +4.7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11.9%p
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※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
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6.9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38.0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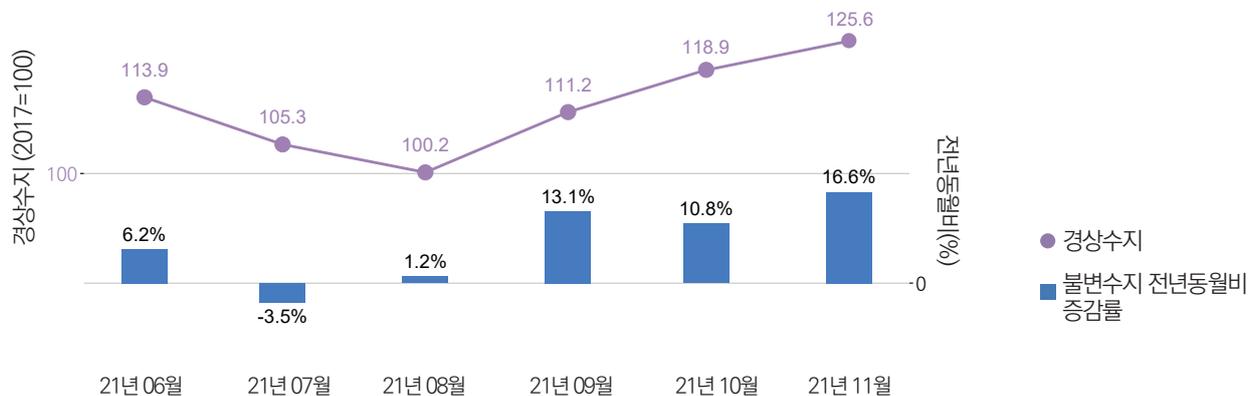
- 도심권은 2021년 내내 소매업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. 도심권 소매업은 서울 소매업 경기지수가 주춤한 11월에도 문화·오락·여가(10월, 4.2% ⇨ 11월, 18.8%), 의복·섬유·신발(10월, 1.2% ⇨ 11월, 11.0%), 음식료품(10월, 14.1% ⇨ 11월, 20.6%) 등 일부 세부 업종의 오름폭이 (전월보다) 확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업 전체 경기지수 오름폭은 (전월보다) 다소 둔화(10월, 7.4% ⇨ 11월, 6.9%)

- 11월 도심권 소매업은 기타가정용품, 음식료품, 문화·오락·여가, 의복·섬유·신발, 기타상품, 무점포소매, 종합소매 순으로 소비증가
- 반면 연료, 가전제품·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
-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세부 업종 모두 3개월 연속 상승세. 음식점(10월, 3.3% ⇨ 11월, 24.0%), 숙박(10월, 69.3% ⇨ 11월, 88.9%), 주점·커피전문점(10월, 7.7% ⇨ 11월, 16.6%) 등 세부 업종의 오름폭도 (전월보다) 확대

- 11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,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

I 도심권 소비경기지수



II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III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